

# Climate Group의 '100 프로그램'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 시 은 (selee@kdb.co.kr)

- ◆ Climate Group은 '기후대응 가속화'라는 미션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 RE100, EP100, EV100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'100 프로그램'을 운영
- ◆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글로벌 공급체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

## □ Climate Group은 '기후대응 가속화'라는 미션을 가지고 '03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런던, 뉴욕, 뉴델리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, 정부, 시민사회 등과 협력

- 동 기관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움직이도록 장려하고, 같은 목표를 가진 기업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이행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
  - '50년까지 전세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, 수송, 건축, 산업을 4개의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
- Under2 Coalition\*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, 매년 Climate Week NYC를 개최하여 기업, 정부, 시민사회 등과 의견을 교류하고 기후대응 업무 수행
  - \* Under2 Coalition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전세계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네트워크로서 글로벌 경제의 43%를 차지하고 13억 인구가 속한 220개 이상의 정부로 구성
  - 기업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입안, 세제혜택 등 대정부 의견도 개진

## □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, EP100, EV100\* 등의 '100 프로그램'을 운영하며, 3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중

- \* RE100(Renewable Energy 100%), EP100(Energy Productivity 100%), EV100(Electric Vehicles 100%)
-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바이오매스, 지열, 태양열, 수력,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이니셔티브
  - 현재 애플, 구글, 테슬라 등 26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, 한국에서는 '20.11월중 SK그룹 8개사, 수자원공사가 RE100 참여를 선언
  -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달성 시점은 '28년으로 이미 30% 이상 기업이 100% 목표를 달성했으며, 44%는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

- EP100은 기업들의 에너지 생산성\*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
  - \* EP(Energy Productivity) = Economic Output / Energy Input (예 : 매출액/투입에너지 기가 줄)
  -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의 40% 이상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달성 가능\*
  - \* International Energy Agency('18.10월), "Energy Efficiency 2018 – Analysis and Outlook to 2040"
  - 에너지 생산성은 설비교체, 시스템 디지털화, 작업환경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개선되나, 기업들은 이를 위한 높은 초기 자본비용을 장애요인으로 지적
  - 현재 10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, 이들의 에너지 생산성은 연평균 6.1% 향상되었으며, '05년 이후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연도 대비 평균 60% 향상
  
- EV100은 글로벌 탄소 배출의 23%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하는 이니셔티브
  - 전기차는 유지비용이 이미 내연차보다 낮으며, 핵심부품인 배터리팩 원가가 '10~'19년중 87% 하락하는 등 판매가격도 수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\*
  - \* LeasePlan의 분석('19.10월)에 따르면, 유럽내 전기차의 구매, 유지 등의 총 소유비용(TCO, Total Cost of Ownership)이 내연차 대비 평균 5% 가량 낮음
  - 현재 92개 기업이 가입중이며, '30년까지 80개국 시장에서 34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, 3,200여개 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약정
  - 상업용 밴, 대형 트럭 등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공급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적

**'100 프로그램' 참여기업들의 이행 의무**

구분	이행 의무
RE100	-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'30년까지 최소한 60%, '40년까지 90%, '50년까지 100%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
EP100	-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연도('05년 이후) 대비 25년 내에 에너지 생산성 2배(100%) 향상 - 10년내 에너지관리 시스템 시행 및 목표 이행 - 소유·점유·개발 중인 건물의 탄소중립 이행
EV100	- '30년까지 직원·고객 대상의 수송수단을 전기차로 전환(3.5톤 미만 100%, 3.5~7.5톤 50%) - 직원·고객의 전기차 사용 편의를 위한 충전소 확충

자료 : Climate Group, "RE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('19.12월)", "EP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('20.11월)", "EV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('20.2월)"

**□ '21년 파리협약\*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영업전략은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**

- \*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°C 이하로 유지하고, 1.5°C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목표로 설정
- 글로벌 기업들의 기후대응 영업전략은 글로벌 공급체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